

달력의 첫 장을 펼치며 새 해 목표를 정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 새 11월입니다.
이제 달력도 이번 달을 제외하면 1장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날씨도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제 조금씩 겨울 분위기가 납니다.

'겨울'에 하고 싶은 것!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따뜻한 아랫목에서 만화책 보는 재미가 아닐까요?

그래서 '아사건의 문화산책 -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만화책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만화책을 만드는 일을 할 때의 얘기입니다.
당시 저의 목표는 '한국적인 만화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려고 보니, 막막함이 그지 없었습니다.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스스로가 답변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서적 등을 뒤지며 탐구를 하기도 했고, 여러 사람들을 찾아 다니며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여 당시 가장 큰 만화동호회에 '한국적인 만화란 무엇인가?'에 대한 토론을 발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토론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한국적인 것이냐?'를 찾기보다, '왜 한국적인 것을 찾아야 하는가?'에 대해 더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중간에 발제 의의를 사람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나서야, 토론은 본 궤도를 찾아 여러 가지 한국적인 것이라 생각되는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 몇 가지 중요한 점들이 네티즌들에게 지적되었는데, 저는 이것들을 종합하여 '한국적인 만화'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의 문화적 배경이 깔린 한국인에 의해 그려진 만화'

이 때, 문화적 배경이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은 인물의 심리나, 행동 동기와 같은 정신적인 부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작품의 주제나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가지는 사고 방식에서 한국인의 사상이나 정신이 흐를 때, 한국적인 작품이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안겨주는데,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적인 것'을 만든다고 하면서 소재를 차용해오는 것에 집중해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영혼기병 라젠카'가 그러했고, 그 밖에 수많은 한국에서 만든 만화책과 애니메이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의상이나 문양 등을 소재로 차용해왔다 하더라도, 그 작품 안에 한국의 정신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그것은 결코 한국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영혼기병 라젠카'가 고구려 문양을 사용했다고 해서 한국적인 애니메이션이 되지 않으며, 이명진의 라그나로크가 전통 문양을 사용했다고 해서 한국만화책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행하게도 정신적인 자립을 이루지 못한 한국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무국적적인 작품입니다. 오히려 가깝기로는 일본의 애니메, 망가에 더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한국 만화들은 한국적인 작품이 되지 못합니다. 심지어 한국을 대표하는 만화가라고 꼽는 이현세의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는 이현세의 만화는 전혀 한국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현세의 만화를 '한국적인 작품'이라고 꼽게 되는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정신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굳이 이현세의 만화에 '한국의 정서를 대변하는 만화'라는 호칭을 넣어주고 싶다면, 이 때 이현세의 만화가 대변하고 있는 한국의 정서는 '왜곡된 한국인의 정신이다'라고 답변해주고 싶습니다.

저 자신도 한 때, 만화산업에서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서, 이현세의 프로페셔널한 면은 존경합니다. 그러나 당시에 탄생한 대부분 만화가들이 그러하였듯이 그에게 만화는 비즈니스의 대상이었을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가 고민한 한국적 만화의 정체성이라는 것도, 한국만화산업 구조에 대한 고민이었지, 그는 스스로 단 한 번도, 자신이 그리는 만화 콘텐츠에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한 적은 없습니다. 나중에 왜색논란이 일자, 스스로를 변명하기 위해 까치머리가 독창적이라는 인터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본 망가를 배낀 것이라는 것을 자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 압니다.)

그는 철저하게 대중적으로 흥행할 수 있는 작품을 그렸고, 한국의 대중이 보고 즐길만한 만화만을 그려왔기 때문에, 그의 만화 속에서 묻어 나오는 한국인의 모습, 한국인의 자화상은, 굴절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왜곡된 한국인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 불의 검 만화책 표지 >

그럼, 이 땅에는 우리의 가슴을 들뜨게 할 만한 한국의 정서를 담은 만화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온전하게 '한국적이다!'라고 말할만한 작품들은 많지 않지만-이미 형식에서 일본의 망가와 애니메 틀을 가져와 사용하기에-, 여러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추천하는 김혜린의 불의 검입니다.

우리 나라의 만화가들은 익히 알다시피, 일본 망가를 모사하면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모사를 하면서 성장해왔더라도, 한국의 순정만화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의 망가와 다른 모습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중, '한국적 정서'라는 측면에서 가장 두각을 보이는 것이 바로 김혜린입니다.

만화동호회에서 토론을 진행했을 때도, 상당수가 한국적 정서가 담겨있는 작품으로 꼽았던 것이 김혜린의 작품이었습니다.

정작 김혜린과 그의 팬들은 '한국적이다'라는 요소보다는,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김혜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저 자신은 이러한 까닭에 '한국적 정서'라는 측면에 초점을 두고 김혜린의 작품들을 읽기 시작했는데, 정말로 읽으면서 한국인만이 느낄 수 있는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천무 이전에 그녀의 만화에서는 다른 순정만화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내용적인 면에서 혁명이라던가, 영웅이라던가, 조금 다른 면을 보여왔지만, 적어도 소재나 그림이 크게 바뀌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천무를 거쳐, 불의 검으로 오면서, 그녀의 만화는 더 이상 순정만화라고 볼 수 없는 강한 힘과 동양적인 색깔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당시 서울대에 재직 중이던 모 교수님께서서는 펜선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 성함을 까먹었네요. --a)

"망가 스타일에서 한국과 일본을 구분 짓는 것은 곡선과 직선의 다른 사용, 그리고 공간의 활용 여부이다. 일본의 망가는 주로 곧은 직선을 많이 사용한다. 이를 바탕으로 매우 정교하게 배경과 인물을 묘사한다. 반면 한국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만화들은 대부분 곡선이 주를 이루고, 여백이 주제를 표현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런데 김혜린의 불의 검에서는 이러한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김혜린의 작품에서 여백은 또 다른 대사다>

김혜린의 '불의 검'에 대해 계속 얘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소개할 만화가 있습니다. 그건 김진의 인기작 '바람의 나라'입니다. 이 작품은 김진이 '한국적인 만화를 그려보겠다'라고 공표하고 의도적으로 그린 만화여서 더욱 '불의 검'과 비교해볼만 합니다. 특히 제가 이 작품을 기억하는 것은, 김진이 '바람의 나라'를 최초로 연재하던 시기가 바로 제가 한국적인 만화에 대해 고민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면 '한국적인 만화'는 당시 만화인들의 공통된 화두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한국적인가?'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바람의 나라'는 낙제점입니다. 물론 지금도 대부분의 팬들은 열광하면서 재밌게 보는 작품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발언

은 김진 팬들로부터 몰매맞을 발언일지도.. --;) 그러나 저의 관심은 재미나 만화 자체의 완성도가 아니라, '한국의 정신이 반영되었는가?'이므로 다른 팬들처럼 열광할 수만은 없습니다. 아니 솔직히 초기 연재했을 당시에는 너무 분노한 나머지, 편집장에게 연재중단을 촉구하는 장문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 '바람의 나라'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구려 유명 인물의 이름을 가진 인물들이 고구려 의상을 입고 나오는 판타지 만화'



<김진이 10년 넘게, 고증을 거쳐가면서 제작한 바람의 나라. 이것은 분명 뛰어난 작품임에는 틀림 없지만, 나로서는 한국적인 만화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바람의 나라'는 "차라리 고구려라는 코드를 빼는 것이 훨씬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다면 저 같은 사람도 충분히 읽어 줄만한 재밌는 만화책이 되었을 텐데요. ^^;

그렇지만 중요한 건, 김진 스스로가 '한국적인 만화를 그려보겠다고 했다는 점입니다.'(김진은 이에 따라 각종 자료를 끌어 모으고, 끊임없이 고증을 거듭했습니다.) 물론 한국적 만화에 대한 정의는 서로 다르게 내릴 수 있으니, 이는 어떤 면에서 김진 식 한국적 만화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김진은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있는 작가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해석한 고구려를 새로운 장르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더라도 아쉬운 것은 콘텐츠의 진부함입니다. '바람의 나라'의 뼈대를 이루는 주 내용은 권모술수와 혈족간의 결투입니다. 이런 우리가 옛날에 TV로 보았던 조선시대의 사극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시대적 배경이 고구려였다면, 최소한 광대한 영토를 바탕으로 한 고구려의 웅대한 기상이 조금은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륙에 살던 사람과 반도에 살던 사람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그 문화 자체가 같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람의 나라' 그 어디에 고구려의 웅대한 정신이 있으며, 대륙인들의 생활상이 있습니까?

오히려 각 인물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위대한 선조들의 이름을 붙여 놓음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우리의 역사를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위대한 선조들이 마법이나 쓰고, 나쁜 계락을 일삼는 종족으로 인식시켜줄 우려마저 있는 게, 김진의 '바람의 나라'입니다.

반면 김혜린은 불의 검을 연재하면서, 지금까지 '한국적 만화를 그리겠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진이 고구려의 역사적 사실을 만화 속에서 살리려고 했던 것과는 달리, 김혜린은 불의 검에 대해서 '이것은 작가의 상상 속에 있는 판타지'라고 말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참 대조적으로 다가옵니다.

김혜린은 인터뷰에서 '불의 검의 아무르족은 어디까지나 개인이 창작해낸 가상의 종족이다'라

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불의 검을 보면서, 혹시 김혜린씨가 한단고기를 읽었거나, 상고사에 대해 공부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로, 아무르족에게서 우리 옛 동이족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녀의 작품 속에 이러한 한국적 정서를 심어주었을까요?

이는 김혜린의 아래 인터뷰 답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쪽에서 우리를 보면 동양이고, 우리가 서쪽을 보면 서양이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동양이라고 한다. 오리엔탈... 중동은 중동이다. 지도 펴 놓고 보면, 어딘가 기준이 있으니 그렇게 된 것이다. 동양이나 서양이란 이름은 일종의 약속처럼 관습화된 결과다.

서양 사람들은 온갖 것 참견하고 팔아먹고..., 하다 하다 안 되면 "동양의 신비 운운..." 한다. 우리는 서양을 추종하면서 어쩌다가 그들이 동양에 관심을 기울이면 되게 감격한다. 마음이 아프다.

인류사 전체를 놓고 보면, 근대 물질 문명에서는 뒤졌지만, 그 이전에도 그런 건 아니다. 곤란한 건 물질 문명에 둘러싸여 산다는 것이다. 서양을 짝사랑만 하는 것도 아니고, 동양에 대해 이상하고도 미묘한 금지가 없는 것도 아니면서, 한편으로 빼놓아진 열등감도 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하느냐? 그렇다고 허구적으로 "대한의 아들로 태어나!" 할 수도 없고... 그러면 『남벌』이나 『사자여 새벽을 노래하라』가 되는 거다. 『남벌』은 그런 걸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통쾌감을 안겨줬을 거다. 그런데 진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고민을 안겨줘... 하하하. 게다가 거기 나오는 여자들이라니... 정말... 어찌됐나? 어쨌든 대중적인 스토리로서는 성공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중략)

만화를 조금이라도 분석하며 읽는 사람이라면, 굳이 저자나 제목을 따로 보지 않고, 번역된 걸 보더라도 일본 건지 한국 건지 알 수 있다. 그 만큼 정서적 토양의 색채가 다르다. 확실히 일본 것은 심미적, 감각적, 말초적이다. 그리고 아주 섬세하다. 칼끝으로 살 꺾대기를 '삭'하고 살짝 벗기듯이... 그런데 우리는 체질적으로 그런 것은 못 견딘다. 차라리 베려면 딱 베라. 왜 꺾대기를 베끼냐? 이것이 우리 식이다. 그렇지 않나? 일본은 심각한 얼굴로 웃기는 데 우리는 웃는 얼굴로 슬퍼한다. 이런 우리 역사와 관련이 있을 거다. 혹은 좋다, 나쁘다 말하기 힘들지만 엄숙주의가 아직 지배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 만화가 아직 착하다. 일본 만화는 좀 못됐다. 못됐기 때문에 악의 꽃이란 말이 있듯이 즉발적으로 다가오는 매력은 있다. 한국 만화는 그에 비해 좀 착하고 둔하고..., 아직 순하다."

- 《만화바로보기 II》(96년 8월)

김혜린은 좋은 작품을 낼 수 없다고 생각되면, 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녀에게 만화란, 자신의 가슴 속에 있는 내면의 무언가를 짜내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자연스럽게 한국인으로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내면의 정서를 토해내게 한 것이 아닐까요?

대부분의 인기작가들이 기계적으로, 계산된 만화를 그리면서 정작 소중한 자신의 정서에서 멀어지던 것과는 반대로, 그녀는 오히려 복잡한 고증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순수한 내면의 본성에 따라 펜을 굴리면서 오히려 자연스럽게 우리 조상들의 숨결을 그려나가게 된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녀의 만화에서, 한국인만이 느낄만한 뜨거운 흥과 가슴 뭉클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한 불의 검이라는 작품에서 드러나는 역사인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이 글을 읽고, 불의 검을 읽게 될 사람들에게 미리 말하지만, 당신이 한국적이라는 것의 가치를 사료적인 면에서 찾는 사람이라면, 불의 검에서는 오히려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불의 검은 역사 만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을 기대하는 분은 차라리 김산호 화백의 '대쥬신제국사'나 한재규의 '만화 한단고기'같은 책을 보시길 바랍니다.

불의 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때문지 않은 우리 동이족의 순수한 기운입니다.

저는 지금도 '아사'가 검무를 추는 모습을 보면, 피가 끓어 오릅니다.

'아사'의 검무는 단순히 무인의 칼춤씨 자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슬픔을 가슴에 묻어둔 채, 한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 자기를 버리고 추는 무아의 충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러한 정신이 그리워지는 때이기에, 이러한 것을 그려내고 있는 이 책이 더욱 소중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 본 글에 사용된 불의 검 일러스트들은 '<http://kimhyerin.com>'에서 퍼왔습니다.

본 글에 사용된 모든 이미지는 원저작권자에게 모든 권한이 있으며, 상업적인 용도로 타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인의 허락을 필요로 합니다. (만화책 페이지는 집에 있는 책 스캔)